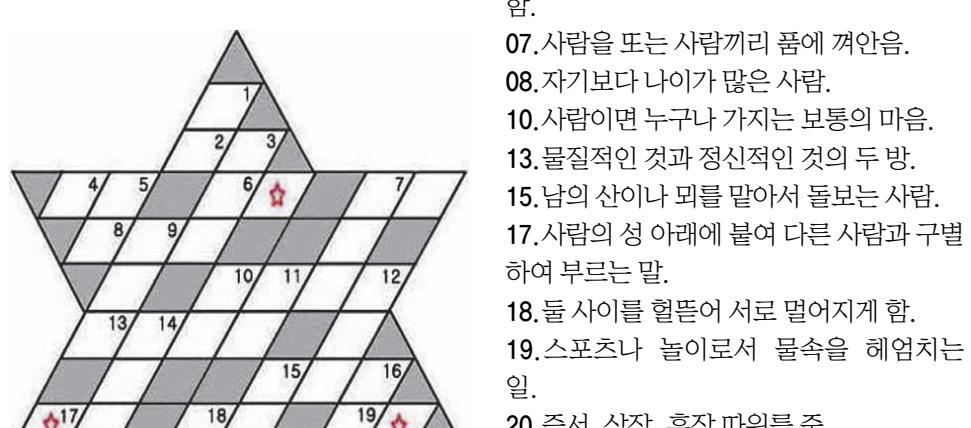


* '클로저 이상용'은 'sportsdonga.com'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강주현의 퍼즐월드 (큐미디어 게임) play스토어·앱·인기무료·검색창에서 경품날말·난수표·숨은그림꽃점·스타와사다리타기·야구스도구·오늘의운세(솔방·그림영어퍼즐·앵무새)을 쳐보세요. 게임 즐기고 경품 받는 재미가 끝내줍니다. www.마직스도구.kr 02-493-5956

다음 문제의 열쇠를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보세요



가로 열쇠

02. 물건값, 봉급, 요금 따위를 올림.
04. 마음속 깊이 품은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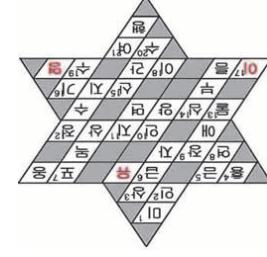
06. 비행기, 배, 자동차 따위에 연료를 보급함.
07. 사람을 또는 사람끼리 품에 껴안음.
08.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09. 가로막아서 거치적거리게 하는 사물.
10. 끌어서 높은 곳으로 옮김.
11. 땅의 표면.
12. 수도 설비의 하나로 여과지에서 거른 정수를 일시 저장하는 뜻.
13.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두 방.
14. 남이 시키는 일을 하여 주는 일.
15. 남의 산이나 땅을 맡아서 돌보는 사람.
16. 비행기의 앞부분.
17. 사람의 성 아래에 붙여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부르는 말.
18. 물 사이를 헤엄쳐 서로 떨어지게 함.
19. 스포츠나 놀이로서 물속을 헤엄치는 일.
20. 종서, 상장, 훈장 따위를 줌.

세로 열쇠

01.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
03. 더 높은 등급이나 계급에 있는 사람.
05.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함.
07. 베나 무명 따위의 웃음을 파는 장사. 또는 그런 장수.

■ 퍼즐정답

단어이어가기:
원쪽 낱말을 모두
문 다음 ★칸의 글
자를 이어 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타 이름이 됩니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2월 16일(화요일) 음력: 1월 9일

<p>쥐 행운색: 흰색</p> <p>오늘의 마음: 폐청, 상쾌. 운세: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혼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오늘은 용의 날이다. 쥐띠는 장성의 기운으로서 용을 만나면 무르익은 기운을 바탕으로 결실의 탑을 쌓는 형상이다. 기본기와 경륜이 탁월하여 자신의 재능 부문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단,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p>	<p>소 행운색: 흰색</p> <p>오늘의 마음: 구름, 자유 추구. 운세: 항상 자신의 주장을 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킬 수 있으니 극기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성적이다. 오늘은 용의 날로서 전설에 해당한다. 전설이란 인간의 의지와 관계 없는 현재지변을 의미한다. 오늘은 관계수를 조심해야 한다. 오늘은 크건 작건 그 일로 인하여 노심초사하고 어디에 있어도 편협을 얻지 못한다. 취침 시 복서 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길방: 서</p>	<p>토끼 행운색: 검정</p> <p>오늘의 마음: 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기꺼운 일은 성취된다. 오늘은 월살 또는 고조살이라 해서 씨앗이 발아가 되지 않는 날이다. 결혼식, 개업일 등 시작을 알리는 날로서는 맞지 않는 날이다. 정신적인 힘으로 인하여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날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삼속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기도 한다. 길방: 북</p>
<p>용 행운색: 흰색</p> <p>오늘의 마음: 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이며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끝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오늘은 용의 날이다. 흐르던 물이 잠시 간한 형상이다. 물이란 항상 흐르는 것이다. 겉보기엔 외롭지 않아 보이나 사실은 외롭다. 발전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앞날을 개척하고 있는 모습이다.</p>	<p>뱀 행운색: 청색</p> <p>오늘의 마음: 파도, 힘의 넘친다. 운세: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이며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끝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오늘은 용의 날이다. 흐르던 물이 잠시 간한 형상이다. 물이란 항상 흐르는 것이다. 겉보기엔 외롭지 않아 보이나 사실은 외롭다. 발전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앞날을 개척하고 있는 모습이다.</p>	<p>말 행운색: 흰색</p> <p>오늘의 마음: 여명, 일출 직전. 운세: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리플로 인해 고난한 경지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약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면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자출이 많을 때이다. 자체하라. 오늘은 월살이다. 어둔은 밤길에 달빛이 나타난 격이다. 금전의 용통이나 어려움의 해결은 용띠에게 부탁하라. 오늘은 주위환경의 변화로 복권에 당첨되거나 삼속이나 목은 돈이 들어오는 희재가 있는 날이다. 열심히 움직여야 하는 날이다.</p>
<p>양 행운색: 흰색</p> <p>오늘의 마음: 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지금까지 쌓아온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광하라. 오늘은 반얀이다. 반얀은 말안장을 뜻한다. 진금이나 높은 자리를 의미하며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성과와 활동이 필요하다. 현재는 어렵지만 궁중통이라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p>	<p>닭 행운색: 노랑</p> <p>오늘의 마음: 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자신의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피로감이 쌓이기 쉬울 때이다. 그러나 점차 지구의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뜻이 광활되는 계기가 조성된다. 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 재미 본다. 오늘은 화개이다. 화개는 종교, 외로움이요 예술이다. 한 분야에 몰입하여 타의 시선이나 관심에 개의치 않는 것이 특징이다. 원숭이는 지상에서 활기차게 시작함을 의미한다. 지상이 화개를 만났으니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진다.</p>	<p>돼지 행운색: 흰색</p> <p>오늘의 마음: 평화롭다. 운세: 성급함보다는 인정을 주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손을 안대도 될 것을 자꾸 건드린다. 새로운 것에 대한 향수를 생겨난다. 새로운 변화를 주구한다. 그런데 오늘은 천살일이다. 천살이란 모든 일이 생성되기 이전의 상태이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조용함이다. 변화를 시도하면 신중하라. 길방: 중앙</p>
<p>재운코너</p> <p>금일의 로또 구입처 행운방향(주거지 기준): 남, 동남, 서남, 서북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1, 4, 6, 9, (2, 7) 금일 복권, 주식, 부동산 매입 행운의 땅: 소, 뱀, 닭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땅: 호랑이, 말, 개</p>		

도원역리학회 도원학당 원장 ※영어상담 가능(02-812-1201~2)

유머

목욕탕 창문



전교생이 딱 두명

강원도 어느 산골에 전교생이 딱 2명인 초등학교가 있었다.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복도를 지나가다 그 두 학생이 싸우고 있는 걸 보았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가서 한마디 했다.
“이놈들~ 전교 1, 2등 하는 놈들이 서로 싸워서야 되겠나!”

기막힌 답

한 초등학교 중간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란에는 ‘○ ○ ○ (가)’ 하고 빈 칸을 채우게 하는 문제였다.
아이들의 답은 제각각이었다.
“고음불가, 이럴수가, 미친건가”
그런데 이 여럿 중에 가장 눈에 띠는 답이 있었다.
“아빠인가”